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3일 화요일 (음 12월 6일) 제17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교육의 역사가 되다

전북도교육청 420여명의 직원들이 드론 기념사진 촬영으로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전 직원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드론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자체 조사결과, 1966년 전북동 청사 낙성식 이후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북교육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51년 만에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우리의 오늘은 전북교육의 역사가 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들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쌀 우선지급금 환수... 농민들 '뿔났다'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등 정산가격 낮게 책정에 따라 농민단체, "농가소득 감소되는 마당에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밀어 죽이는 꼴... 즉각 철폐할 것" 주장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져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지난해 8월 산지쌀값이 낮아 예외적으로 산지쌀값의 93%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 쌀값이 재고 부담, 미질 저하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15%가량 낮게 책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초유가 사태가 발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12월간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 4만 4,140/40kg으로서, 수확기 산지쌀값(12만9,807원/80kg)을 비 가격으로 환산

한 것이며 등급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과 매입확정가격 간의 차액은 전액 환수될 계획이며, 1등급 기준 860원/40kg에 해당한다.

농가별 환수금액이 확정된 후 환수금액이 고지서로 발행되면 농가별로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월별 환수금액을 반환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환수시까지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이 불가하도록 매입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농가들의 우선지급금 환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

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도연맹은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만 9000만톤을 매입하며 비 40kg당 4만 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농식품부는 비 40kg당 초과 지급된 860원씩을 환수에 우선지급금 총 197억여원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라며 "환수금 미납 농가에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이는 쌀값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들을 압박하려는 정부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연맹은 "농식품부는 무지막지하고 열도당도 않는 살생정책으로 농민을 계속 압박한다던 농민항쟁 도화선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잊지말라"며 "전북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정부의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전북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매입물량은 12만5,131톤이다. /안재용 기자

도, 올 보통교부세 7757억원

전년보다 13.7% ↑... 증가율 최대

올해 전북도의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행자부에서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산정결과에 의하면 전북도 본청이 전년(6,820억원) 대비 13.7%가 증가한 7,757억원을 확보해 전국 도본청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역대 최고 증가율도 경신했다.

전국 도본청 평균증가율이 3.3%에 그쳤으나, 전북도는 13.7%의 증가율을 기록해 4배 이상 상회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북도는 719억원의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게 됐고, 이 재원은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이같은 보통교부세를 획기적으로 증액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행사축계성 경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재정지출 효율화 분야에서 인센티브(178억원)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행자부 전문가를 초청한 실무교육, 도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담당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에 유리한 통계항목을 적극 발굴해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유라, 덴마크서 불잡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에 도피 중인 정씨를 덴마크 북부 올보르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1일 현지 경찰이 정유라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며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이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는 정씨의 이복이며, 나머지 3명은 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2명과 60대 여성으로 모두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특별검사에 통보했다. /뉴스